

불사성(IMMORTALITY)



로마서 2 :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7] To them who by patient continuance in well doing seek for glory and honour and
immortality(ἀφθαρσία), eternal life:

성경에는 IMMORTALITY (불사성)의 상태는 두 stage 로 표현된다. 제일 먼저 나오는것이 창조된 후 타락하기 전의 상태이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 후 영화의 몸을 입었을 때의 상태이다. 전자의 상태는 영생의 약속은 받았으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IMMORTALITY 이고, 후자는 영생도 가졌고 IMMORTALITY 도 가진 상태이다.

이 두상태는 복음의 계시로 말미암아 현저히 구분 되었다.

디모데후서 1 :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리 내신지라

But is now made manifest by the appearing of our Saviour Jesus Christ, who hath abolished
death, and hath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to light through the gospel:

드리 내신지라 : 밝히 보여 주신지라

생명 : Eternal Life

썩지 아니 할 것 : Immortality(ἀφθαρσία)

우리는 이 두 상태에 대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1. 타락하기 전의 IMMORTALITY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은 몸은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자연적 상태에서 IMMORTALITY 를 가지고 있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이것이 정통적 해석이다.

창세기 2 : 16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불사성이 박탈되어 죽어야 할 운명이 된다는 말이다. 사망은 이 명령을 어김으로 들어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와 펠라기우스의 후 계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사람은 죽도록 창조되었다. 죽도록 창조된 인간이 죽지 않으려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펠라기우스에 맞서 성 어거스틴은 아담의 육체는 불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성 어거스틴의 해석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도 일치한다.

로마서 5 : 12 이렇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음을 받았을 때는 불사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 온 것이다.

펠라기우스의 말대로 죄를 지거나 안지거나 죽도록 되어 있었다면, 아담 한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 왔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사망이 어차피 에덴에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원죄이론도 없어진다. 모든 인간이 죽도록 되어 있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의 이런 해석은 옳지 않다. 왜냐 하면 **어차피 죽을 인간이라면**, “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 먹지 않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해야지, 어차피 죽을 인간이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은 자연스럽지 않다.

펠라기우스 이론은 성경에서 이탈한 것이다.

사람은 불사성의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아담의 불사성은 흠으로 부터 온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불사성이다. 물질은 변전하기 때문에 물질로 된 아담의 몸은 그 자체의 능력으로는 불사성이 없다. **. 이것은 불사성의 완전한 회복은 내세에 (변화된 몸으로)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불사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불사성이 유지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순종이 요구된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불사성은 먹지 말라는 율법 안에서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생명이 위로 부터 물질 위에 공급되어 불사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사탄이 존재하는 에덴에 있어서는 순종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탄과의 투쟁을 의미한다.

물질로 된 몸의 불사성(Immortality)이 고정(fixed)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수양(adaption)케 하는 영생과 거룩의 고정(fixed)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것을 가능케 해 주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죄용서와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거룩이 고정되고, 부활로 인해 성령님이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 오시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Immortality 는 가능케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들어 내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이다.

디모데후서 1 :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 내신지라

But is now made manifest by the appearing of our Saviour Jesus Christ, who hath abolished death, and hath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to light through the gospel:

드러 내신지라 : 밝히 보여 주신지라



생명 : Eternal Life

썩지 아니 할 것 : Immortality

이 구절에서 생명은 영생을, 썩지 아니할 것은 immortality 를 말한다.

구약에서의 육신의 불사성의 회복

다른 구약의 구절에서도 내세에 있을 육신의 불사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출애굽기 3 :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육신의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것이 아니다. 죽고 나서도 펼쳐지는 세계가 있다.

그 후의 세계에 대하여,

호세아 13 : 14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I will ransom them from the power of the grave; I will redeem them from death: O death, I will be thy plagues; O grave, I will be thy destruction: repentance shall be hid from mine eyes.

이것이 기독교만이 줄수 있는 위대성이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런 진리를 말하는 종교가 없다.

2. 회복된 후의 immortality

회복된 immortality 의 생생한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서 만의 부활이 아니고 몸도 부활한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체이지만 제자들이 차려 놓은 물고기도 잡수시고, 부활체이지만 문이 잠긴 곳에도 드러 오실 수 있었고 또 동시에 여러 곳에서 오백여 형제에게도 나타 나셨다. 아담의 불사성은 물질의 불사성이라 시공에 제한을 가진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한다.

한 사례만 찾아 보면,

고린도전서 15 : 4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 :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고린도전서 15 :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이는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15 :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린도전서 15 :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의 부활체를 미리 보여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몸의 부활의 보증으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있다.

고린도후서 5 :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5 Now He who prepared us for this very purpose is God, who gave to us the Spirit as a pledge .

사도바울은 영화된 몸의 quality 를 썩지 않음(incorruption), 불사성(immortality)의 두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고린도전서 15 : 53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⁵³ For this corruptible must put on **incorruption(ἀφθαρσία)**,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ἀφθαρσία)**.
고린도전서 15 :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⁵⁴ So when this corruptible has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has put on immortality, then shall be brought to pass the saying that is written: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이 상태는 예수님의 재림후 신자들의 변화된 몸을 말한다. 이것을 영화된 상태(the state of Glorification)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영화 된 몸의 상태에 대해서

마가복음 12 : 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결론>

이것은 인간의 육체는 물질로 되어 있어, 본래적으로 불사성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고,

변전함이 없는 불사성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부터 온다.

아담이 시험에 아담이 이겼다면 그는 불사성을 소유한하지만, 그 불사성은 흠에서 온 물질이 가진 불사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사성과는 달라 그것은 영화의 상태가 아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소유케 되는 것은, 물질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질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다.

고린도전서 15 : 35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전서 15 : 36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린도전서 15 : 38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고린도전서 15 : 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고린도전서 15 :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 :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Who only hath immortality(*ἀθανασία*), dwelling in the light which no man can approach unto;
whom no man hath seen, nor can see: to whom be honour and power everlasting. Amen.